광주·전남 4년제 대학 1년 등록금

조선대 685만원 가장 비싸

'대학 알리미' 분석

광주·전남지역 2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조선대로 나타났다.

11일 대학 정보공시제 포털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입력된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연간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조선대가 684만9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신대가 682만5천원, 광주대 670만1천원, 호남대 667만1천원, 남부대 658만2천원 등이었다.

전국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영남대 제2캠퍼스(의대)로 1천40만6천원이었다.

조선대 의대와 동신대 한의대 등은 970만~855만원대로 전국 상위 대학 못지않은 수준이었다.

600만원이 넘는 대학은 조선대를 포함해 11개 대학으로 절반을 웃돌았으며, 500만원대는 호남신학대(573만원)와 명신대(533만5천원) 등 2곳으로 조사됐다.

400만원~300만원대 대학은 전남대 본교(429만6천원)를 비롯해 순천대(403만1천원), 목포대(402만원), 목포해양대(374만7천원), 광주교육대(308만8천원) 등 국·공립 6곳이다.

등록금이 가장 싼 곳은 영산선학대(영광)로 200만원이었다.

국립대(28개) 중에서는 서울대가 608만7천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강릉원주대 제2캠퍼스, 강원대 제2캠퍼스 등의 순이었으며 전남대는 12번째였다.

이와 함께 전국 7개 여자대학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이화여대로 879만1천원이며, 유일한 지방 여대인 광주여대는 626만2천원이었다.

정보공시제에 따라 대학들은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 정보를 업데이트 하며 4월에는 등록금을, 9월에는 신입생 충원율 및 졸업생 취업률 등 나머지 주요 학교 현황 정보를 공시하게 돼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09 광주·전남 4년제 대학 등록금 〈단위:천원〉

학교명	등록금
조선대학교	6,849
동신대학교	6,825
광주대학교	6,701
호남대학교	6,671
남부대학교	6,582
한려대학교	6,461
광신대학교	6,374
광주여자대학교	6,262
대불대학교	6,235
목포가톨릭대학교	6,218
초당대학교	6,073
호남신학대학교	5,730
명신대학교	5,335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4,316
전남대학교	4,296
순천대학교	4,031
목포대학교	4,020
목포해양대학교	3,747
광주교육대학교	3,088
영산선학대학교	2,000

광주 초등생 학습준비물 내년부터 무상 제공한다

시교육청, 전국 첫 '학부모 부담 제로화' 사업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부부인 김순미(여·38·광주시 동구)씨는 아침이면 아이들의 학습 준비물 때문에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김씨는 "저녁 늦게 퇴근한 뒤 집안일에 매달리다 보면 아이들의 학습 준비물을 깜빡 잊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침 출근시간에 준비물을 해결하느라 진땀을 뺀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의 경우처럼 광주지역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학습 준비물 걱정이 내년부터는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11일 "이르면 내년부터 '학습준비물 학부모 부담 제로화'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학습 준비물을 모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업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초등학생 1인당 학습 준비물 지원비로 매년 2만 5천원씩을,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는 3만 5천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평균보다 1인당 5천원씩이 높은 금액으로, 올해에만 광주지역 145개 초등학교 12만 3천 29명의 학생에게 31억여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학습준비물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업시간에 활용되는 각종 학생용 학습자료 중 기본 학용품을 제외한 학습자료로 연필, 공책, 지우개 등은 제외된다.

시 교육청은 이 같은 예산지원에도 학교별, 학급별로 학부모들의 학습준비물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1인당 지원액을 2~3배가량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80여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학습준비물 학부모 부담 제로화' 사업이 시행되면 도화지와 색종이 등은 물론 삼각자를 비롯한 기본 학습준비물부터 리코더와 같은 개인악기까지 무상으로 제공된다.

학부모 알림장에서도 학습 준비물 목록은 사라지게 된다.

시 교육청은 '학습준비물 학부모 부담 제로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광주 본촌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운영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각 학교의 지원 예산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 신미숙 장학사는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학부모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학생 및 학교 간 수업 준비물 격차 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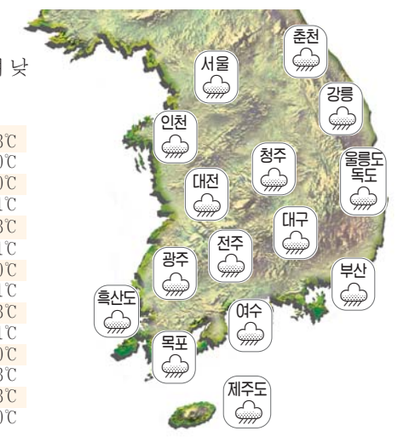
"스톱! 어린이가 내려요" 광주시 동구는 11일 청사 내 광장에서 '아이-STOP' 이 설치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선보였다. 아이-STOP은 어린이 통학차량 출입문에 승·하차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한 것으로, 동구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23대에 이를 설치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뜸 05시 31분 해짐 19시 27분 달뜸 22시 33분 달짐 07시 17분

더위 잠재운 '단비'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으며 낮부터 점차 개겠다.

광 주	흐리고 비	17/23℃
목 포	흐리고 비	17/20℃
여 수	흐리고 비	17/20℃
완 도	흐리고 비	17/21℃
구 례	흐리고 비	15/23℃
해 남	흐리고 비	16/21℃
장 흥	흐리고 비	17/20℃
고 흥	흐리고 비	16/21℃
순 천	흐리고 비	16/23℃
영 광	흐리고 비	17/21℃
진 도	흐리고 비	17/20℃
전 주	흐리고 비	17/23℃
남 원	흐리고 비	17/23℃
흑산도	흐리고 비	14/20℃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북	1.0~1.5m
먼바다	남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서	1.0~1.5m
먼바다	남서~북	1.0~2.0m

	밀물	썰물
목포	04:04	09:14
	15:42	21:01
여수	10:20	04:39
	23:08	16:2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날 씨						
최저/최고	14/27	12/28	14/26	15/20	14/25	14/27

광주시교육청 비정규직 3명 중 1명 '특채'

5년간 1,208명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관과 학교에서 채용한 비정규직 3명 중 1명은 특채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비정규직(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3천532명의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34.2%인 1천208명이 특별채용됐으며 61.3%(2천165명)는 공채, 159명(4.5%)은 고용 승계됐다.

광주시교육청 인사관리지침에 비정규직은 각 기관(학교)에서 필기, 실기, 면접 등을 거쳐 채용해야 하고 인원, 조건, 자격 등 채용에 관한 사항도 일정 기간 공개해야 하는 등 공채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교과전담 강사와 당직전담, 영어센터강사, 사회복지사만 전원 공채로 뽑았으며 전임코치, 조무원 등은 특채된 인원이 공채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봉근 시교육위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지침을 어긴 특별채용이 성행하다 보니 인사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중·고 교사 부족

6,441명 근무 … 법정 정원 80.9% 그쳐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사수가 법정 정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봉근 광주시교육위원회 위원은 11일 제 175회 임시회 질의를 통해 "광주지역 중·고교 근무 교사수가 해마다 법정정원을 크게 밑돌아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에 따르면 공·사립 중등교사는 6천441명으로 법정 정원 7천966명의 80.9%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학교마다 정원과 비교하면 교사 10명 중 2명꼴로 부족한 수치다.

중학교는 정원 3천680명에 비해 현인원이 2천872명으로 808명(21.9%) 부족하고 고등학교는 3천569명에 그쳐 정원 4천285명보다 716명(16.7%)이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중학교 교사 상당수가 주당 21시간이 넘는 과도한 수업 부담과 공문 처리 업무 등으로 인해 내실 있는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화물연대 16일 파업 투표

'물류대란' 우려

화물차주 1만5천여명으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물류대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는 오는 16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긴급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총파업 여부를 두고 찬반투표를 벌일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운송거부 투표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이었던 고(故) 박종태씨가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 집회 등을 주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배됐다가 지난 3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촉발됐다. /연합뉴스

광주 도시공사 발파암 매각 10억 수익

광주시 도시공사가 광역위생매립장 공사 현장의 발파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암(발파사토)을 공개 매각해 10억 원의 수익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발파암은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관련 업체에게 무상 공급돼왔다.

11일 시 도시공사에 따르면 오는 2011년 초 완공 예정인 광역위생매립장은 남구 양과동에 들어서며 모두 298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12만540㎡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조성공사 납품설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우수한 상당량의 발파암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공사 측은 발파암이 콘크리트용 골재나 도로 바닥을 다지는 데 활용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점에 착안해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공개매각에 나섰다.

최근 진행된 공개매각에서 공사 측은 36만6천559㎥에 이르는 발파암을 창업중기(주)에 1㎥당 2천719원에 매각해 9억9천6백 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윤현석기자 chadol@